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 전북도 기념물 지정

고인돌 축조 방법·변화양상·지역적 특색 등 우리나라 고인돌 문화 이해 중요 자료로 평가

고창군은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高敞 上金里 支石墓群)'이 제8차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고시 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은 고인돌 축조 방법과 변화양상, 지역적 특색 등 우리나라 고인돌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됐다.

고인돌군은 고창군 대신면 상금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가릿재 고갯길을 따라 2.7km 정도 범위에 9개군(가~자군) 218기 정도가 무리를 지어 분포한다. 이 중 고인돌의 밀집도가 높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나~라'군 87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도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했다.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의 특징은 구조적으로는 덮개돌(상석)과 고인돌(지석)의 형태와 배치가 매우 다양하다. 바둑판식(기반식)을 중심으로 기둥형태 고인돌(柱形支石) 및 지상석곽식(地上石槨式), 개석식(蓋石式), 위석식(圍石式) 등 우리나라 고인돌 형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고인돌도 덮개돌 아래에 4개가 놓여진 것 외에도 중앙과 한쪽 부분에 추가로 더 배치된 것도 확인된다.

특히 고인돌이 가릿재 고갯길을 따라 열을 이루며 분포하는 양상은 청동기시대 해안과 내륙 산간 지역을 이어주는 옛길까지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 34호.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 신규 8호.

고인돌군 주변으로 고인돌 축조와 관련된 채석장도 확인돼 고인돌의 채석, 운반, 축조 등 일련의 축조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고고·역사·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인정받았다.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은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다음으로 많은 수의 고인돌이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입지적으로도 고창과 화순 고인돌유적과 유사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견줄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즉,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은 옛길을 따라 축조된 독특한 분포적 특징과 함께 매우 다양한 형식이 확인돼 고인돌의 축조 방법과 변화양상, 입지적 특색 등 우리나라 고인돌의 성격

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해 '고창 부곡리 고인돌'의 도기념물 지정에 이어 올해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이 도기념물로 지정된 성과는 고창이 '한반도 첫 수도'이자 진정한 고인돌 왕국였음을 방증하는 근거다"며 "앞으로 학술조사 및 보존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사적 승격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창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고창군 전역의 고인돌에 대해 현황을 파악한 후 고인돌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고인돌 보존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난 8일~11일까지 4일 간 제10회 젠더문화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사진은 5대 실천과제 낭독 모습)

'제10회 젠더문화축제' 성황리 개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39개 기관·단체 유아~성인까지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지난 8일~11일까지 4일 간 제10회 젠더문화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주축이 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39개 기관과 단체가 함께 도내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13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10주년을 기념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가는 10년을 주제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에 적극 대응하며 일상생활에서 차별받거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평등사회를 위한 다짐과 미래 지향적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5가지 실천 의지를 담아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10주년을 맞아 젠더문화축제 추진 기관·단체의 노고를 치하

한다"며 "앞으로도 근로, 교육, 돌봄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남성도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평등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의식개선과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나온 10년, 가야 할 10년'을 주제로 지난 10년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성평등 가치실현과 젠더 문화축제 방향성 도출을 위한 10인의 워킹 토론회를 진행, 여성계 네트워크와 젠더거버넌스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운애 센터장은 "4일 동안 이어진 축제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평등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도민의 참여로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불씨를 날려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www.jbcw.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 출범

전북문화관광재단, 광주·전남·제주 광역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공동선언문 발표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전라·제주권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 전남, 제주 광역문화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해 광주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9일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강당에서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지역의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출범을 통해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내 권역 단위 문화재단들이 자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문화분권 및 문화다양성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실질적인 정책·사업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문화재단 대표들은 전라·제주권 교유의 문화정책성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문화와 예술이야말로 재난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연대의 도구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예술인과 시민의 삶을 위로하고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문화 가치와 문화다양성 확대의 답을 지역에서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 및 가치 발굴을 위한 정책방안 공동수립 ▲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 출범식 모습.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행 ▲전라·제주권 문화예술 발전 및 영향력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주요 문화예술 정책동향에 대한 공동대응 및 정책 제안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사업 활동 교류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오늘 각 재단에서 발표한 전라·제주권 공동 및 협력사업 중에서 공

통점이 있는 사업들은 연결시켜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며 "4개 재단의 실무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 출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팀(063-230-743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추석 특별기획 '창극' 유튜브 상영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추석 연휴 3일간 유튜브를 통해 집에서 창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실황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상영한다.

이번에 만나게 될 창극은 국립민속국악원 2021대표창극 '춘향전: 몽룡을 기다리며'로 코로나19로 공연장을 찾지 못한 많은 국민들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특별기획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춘향전은 남녀간의 차별없고 평등한 관계속에 신분을 뛰어넘은 춘향의 진정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으로, 4월 국립국악원 예약당(서울)과 6월 국립민속국악원 예연당(남원)에서 초연되었으며, 이번에 만나게 될 영상은 4월 23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의 공연실황이다.

특히 이번 유튜브 공연에서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



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여에 관한 문의는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공연PD 정수민(063-620-2328)으로 하면 된다.

국립민속국악원 정수민 PD는 "옛 추석 연휴와 달리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시기에 고향 향수를 자극하는 '창극 춘향전'과 함께 잠시나마 감동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출신 봉산 정재경 화백, 전봉준장군동상건립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 출신으로 문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봉산 정재경 화백이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에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봉산 정재경 화백은 현재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8월 한국에총 고창지회 초대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문인화의 대가로 화단에서 인정받는 중견작가다.

정재경 화백은 "전봉준장군의 고향인 고창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며, 고창출신으로서 성금모금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고 밝혔다.

진윤식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1억원 목표를 훌쩍 뛰어넘어 9월3일 현재 4억15499명이 참여하여 2억5719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며 "많은 군민과 출향인들이 뜻을 모아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6일에 시작된 전봉준장군동상건립 성금모금은 오는 15일까지 진행 후 마감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출신으로 문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봉산 정재경 화백이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에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검색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